***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4. 8. 26.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대전력망 기술회의(CIGRE)에서 방문객들이 LS전선-LS일렉트릭의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
| **문의** | **김광국 과장 (02-2189-9597, 010-4306-5788 ,** [**kimgg@lscns.com**](mailto:kimg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전선·LS일렉트릭, 세계 최대 전력 전시회서 최신 전력 기술 선보여**  **■ 25-30일, 프랑스 CIGRE 2024 동반 참가**  **■ IDC용 초전도솔루션, HVDC 해저케이블 등 전시**  **■ AI 시대 선도할 전력망 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  LS전선과 LS일렉트릭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력 전시회에 동반 참가해 데이터센터(IDC) 솔루션 등 신사업을 선보인다.  LS전선은 LS일렉트릭과 25일부터 30일까지(현지시간) ‘2024 CIGRE’ (국제 대전력망 기술회의) 전시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CIGRE는 전력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921년에 출범한 국제기구로, 격년으로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에는 120개국에서 29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전력 산업의 미래를 논의한다.  이번 전시에서 LS전선과 LS일렉트릭은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과 초전도 전류제한기로 구성된 IDC용 초전도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IDC는 AI 산업의 발전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변전소 신설이 주민 수용성과 사업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전도 솔루션은 변전소 없이도 22.9kV의 낮은 전압으로 154kV급 대용량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또한, LS전선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을, LS일렉트릭은 변전소용 친환경개폐장치 등 전력망 관련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한다.  회사 측은 “LS전선의 HVDC 해저케이블과 LS일렉트릭의 변전 설비는 전세계 Top 수준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양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력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